

KBI 연구 04-11

2004 이슈

일본 드라마의 국내 편성실태와 수용 현황

김영덕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목 차>>

1. 들어가며	1
2. 일본 대중문화 정책과 일본 드라마 개방	2
3. 일본 프로그램 국내 수입 현황	4
4. 일본 드라마의 편성실태	6
1) 일본 드라마의 편성 현황	6
2) 일본 드라마의 자국내 방송년도와 시청률	1
5. 일본 드라마의 시청률과 수용자 반응	3
1) 일본 드라마의 시청률	4
2) 일본 배우의 국내수용	9
6. 결론	2

<<참고문헌>>	26
----------------	----

<<표차례>>

<표 1> 일본 방송 2차 개방 주요 내용 요약	3
<표 2> 일본 방송프로그램 수입 추이	6
<표 3> 채널별 일본 드라마 편성 편수	7
<표 4> 일본 드라마의 요일/시간대별 편성 현황	7
<표 5> 일본 드라마의 유형	10
<표 6> 일본 드라마의 일본내 방영년도별 분포	12
<표 7> 일본내 방송사별 일본 드라마 편수 분포	12
<표 8> 일본 드라마의 일본내 시청률	13
<표 9> 일본 드라마의 시청률	15
<표 10> 일본 드라마의 연령별 시청률 분포	17
<표 11> 일본 주연급 배우의 드라마 노출도 현황	20
<표 12> 일본 배우 팬 카페 개설수 랭킹	22
<표 13> 일본 배우의 팬페이지 개설 현황	23
<표 14> 주요 일본 드라마 카페 개설 현황	24
<표 15> 대표적인 일본 드라마 통합 카페	25

1. 들어가며

방송은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유통매체일 뿐만 아니라 일상적이며 무의식적인 시청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른 어떤 대중문화 콘텐츠보다 침투력이 높은 매체이다. 이러한 방송매체를 통해서 일본 드라마가 정기적으로 유통된다고 한다면, 경우에 따라 이의 사회적 문화적 파급효과는 매우 커질 수 있다.

그런 만큼 일본 방송개방문제는 일본 대중문화 개방 가운데에서도 국내에의 파급효과가 가장 우려되었던 핵심적인 사안이었다. 그럼에도 일본 드라마를 개방한 이유를 쉽게 설명하자면, 그 동안 우리나라의 드라마 제작능력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개방해도 커다란 여파는 없을 것이란 주장과 함께 그러나 아직은 검증이 안 된 만큼 단계적으로 개방하자는 논리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 드라마는 지상파 TV가 아닌 케이블TV나 위성방송에만 매체 제한적으로 개방되었으며 그것도 12세 이상 시청자인 드라마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15세¹⁾ 또는 19세 시청가 드라마는 제외되었다. 제2차 방송개방조치에 따라 일본 드라마가 2004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국내에 허용되면서 지금까지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을 통해 40편 넘게 방송되거나 방송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즐겨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드라마이다. 그런 만큼 일본 드라마도 즐겨볼 것이라는 유추는 가능하며 이러한 해석이 가능한 배경은 한일은 타국보다 문화적 유사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지리적 근접성뿐만 아니라 동양 문화권에서 오랫동안 선진문화가 한반도를 거쳐 일본에 유입되어 왔고 근대이후에는 일본을 거쳐 한반도에 서양문화가 대량으로 전수되기도 했던 만큼 한일양국간의 문화적 상호 유사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일본 드라마는 유사한 문화적 토양 위에서 생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전 제작제의 정착 및 일본의 시장 규모나 제작비 규모에 의한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등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의 침투력 및 수용성의 정도는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이의 파급효과가 시청을 통한 정서적 소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부수되는 관련 산업을 자극하는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상품이라는 점에서 이의

1) 15세시청가 등급지정은 방송사의 자율적 권한에 속한다.

귀추가 예의 주시된다.

본고는 일본 드라마가 유입된 지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그 간에 소개된 일본 드라마 편성 및 수용 실태를 토대로 제한적인 범주에서나마 방송개방정책의 성과를 중간 점검해보고 향후 방송개방정책방향의 단초를 도출해보고자 한다.

2. 일본 대중문화 정책과 일본 드라마 개방

일본 문화 유입을 금지하는 정책은 해방이후인 이승만 정권시절부터 시작되었다. 일본 문화만을 금지하는 별도의 제도적 근거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일본 대중문화 유입금지 정책은 당시의 지배적인 반일정서를 모태로 삼아 계속해서 존속해왔다. 그러다가 김대중 정권에 들어서면서 처음으로 기존의 전면 금지정책을 수정하고 단계적 점진적 개방정책으로 전환했다. 이에 입각해 그 동안 1998년 1차 개방을 필두로 1999년, 2000년, 그리고 2003년까지 총 4차례에 걸친 일본 대중문화 개방정책이 발표되었다.

다만 일본 문화 유입 금지 정책 가운데 방송영역이 포함된 것이 실제적으로 확인된 것은 196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1963년 3월에 일본의 방송전파 월경으로 부산 일대에서 일본TV 시청 붐이 일어 문제가 되었던²⁾ 적이 있었다. 그 이후에도 1980년대 초반 일본 NHK BS(Broadcasting Satellite)의 스피ل 오버(Spill-over)를 둘러싼 문화주권 논쟁 등이 불거져 커다란 사회적 화두가 되었다. 이와 같은 장년의 사회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단계적인 방송개방정책이 시행된 것은 2000년 6월의 제3차 개방부터이다. 방송개방은 제3차 개방에서 처음으로 언급되었으며 이때 다큐멘터리, 스포츠, 보도프로그램의 전면 개방 그리고 국내 개봉 일본 영화의 케이블 TV 방송이 허용되었다. 하지만, 역사교과서, 일본 총리의 야스구니 신사 참배문제 등의 과거사관련문제가 한일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추가 방송개방문제도 당분간 뒷전으로 밀려났다. 그러다가 2003년 6월의 한일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일본 대중문화 개방 확대 공언에 따라 2003년 9월과 12월말에 추가적인 대중문화개방내용이 발표되었다. 이 발표에 입각해 해방이후 처음으로 일본의 드라마가 2004년 1월부

2) 정순일, 장한성(2000), 한국TV40년의 발자취, 방송문화진흥회, 40항

터 공식적으로 우리의 방송매체를 통해 방영되고 있다.

2004년부터 케이블TV와 위성방송에서 생활정보 등의 교양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국내 영화상영관에서 개봉된 영화 및 극장용 애니메이션, 일본 대중가요가 전면 개방되었으며, 드라마는 '모든 연령·7세 이상·12세 이상 시청가 등급' 및 '한·일 공동제작 드라마'에 국한하여 부분적으로 허용되었다. 또한 지상파방송(TV·라디오)

〈표 1〉 일본 방송 2차 개방 주요 내용 요약

개방대상	케이블TV·위성방송 (PP)	지상파방송 (TV·라디오)	비 고
스포츠 / 다큐 / 보도	○전면 개방	○전면 개방	* 1차 방송개방('00. 6)
생활정보 등 교양 프로그램	○전면 개방	○전면 개방	※ 최초 개방 ※ 지상파방송의 경우 한국어 더빙 권고
영 화	○1차 방송개방('00.6) - 국제영화제 수상작과 전체관람가 영화중 국내 개봉작 ○전면 개방	○전면 개방	※ 개방 확대 ★ 개방대상을 국내 영화상영 관 개봉작으로 한정
극장용 애니메이션	○전면 개방*	○미 개방	※ 지상파방송의 경우 한국어 더빙 권고
대중가요	○전면 개방	○부분 개방 - 국내에서의 일본 가수 공연 중계 - 일본가수의 방송 출연 일본어 가창	※ 최초 개방 ★ 지상파방송의 경우 일본어 가창 뮤직비디오 제외
드라마	○부분 개방 - 모든 연령·7세 이상· 12세이상 시청가 등급 드라마 - 한·일 공동제작 드라마	○부분 개방 - 한·일 공동제작 드라마	※ 최초 개방 ※ 공동제작 드라마 인정기준 마련(방송위원회) ※ 지상파방송의 경우 시청자 자막방송 고지 및 한국어 더빙 등 권고
기타 오락프로그램	○미 개방	○미 개방	

*국제영화제 수상작으로 국내에서 개봉된 애니메이션은 케이블TV와 위성방송에서 방송이 허용
됨을 의미.

출처 : 방송위원회

은 교양프로그램과 국내 영화상영관 개봉작에 한하여 전면 개방되었으며, 대중가요는 국내에서 개최되는 일본 대중가수의 공연 중계 및 국내방송 출연에 따른 일본어 가창만을 허용하고, 한일 공동제작을 제외한 드라마, 극장용 애니메이션과 버라이어티쇼 등 기타 오락형 프로그램은 이번 개방에서 제외하였다(〈표-1〉 참조).³⁾

이번 방송개방 폭 결정과 관련하여 가장 고민거리였던 분야 중의 하나가 드라마와 오락 프로그램이었다. 왜냐하면 드라마란 스포츠나 보도, 다큐멘터리와 달리 정규편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시청자의 시간을 구속하며 일정한 스토리 내에서 지속적인 시청을 요구하고 있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 국민은 타 프로그램보다 특히 드라마를 선호하는 성향이 강하고 개방대상이 선진 일본의 수준 높은 드라마라는 점에서 국내에 전면 유입되어 방송될 경우, 상당한 사회문화적 파급력이 예상되었다. 그런 만큼 이번 개방에서는 단계적으로 케이블TV와 위성방송에서만 허용하고 전국민에게 노출될 수 있는 지상파TV는 방송을 여전히 금지하는 단계적 개방정책을 편 것이다.

3. 일본 프로그램 국내 수입 현황

일본 방송 개방의 본령은 방송프로그램과 그 내용이다. 따라서 일본 방송을 개방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일본프로그램과 내용을 개방한다는 의미이다. 더 나아가 일본 방송프로그램을 개방한다는 것은 방송매체를 통해 방영이 허용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2004년 1월에 일본의 드라마, 생활정보 등 교양프로그램 등이 개방되었다는 발표는 개방대상에 포함된 일본 방송프로그램은 방송매체를 통해 방영해도 괜찮다는 공식 선언인 것이다. 하지만 그 이전까지만 해도 방송국이 방송을 목적으로 외국프로그램을 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문화관광부 장관의 수입추천⁴⁾을 필해야 했기 때문에 방송여부는 물론 방송프로그램의 수입자체까지도 통제권역에 속했다. 그러나

3) 방송위원회, 2003.12.31 보도자료.

4) 구방송법 제 40조의 2(외국방송순서의 수입추천) 외국에서 제작된 방송순서를 방송을 목적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방송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 장관의 수입추천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보도에 관한 방송순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년 3월에 시행된 통합방송법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의 수입 추천제가 폐지됨에 따라 국내사업자가 일본 방송프로그램을 수입하는 것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어졌으며 다만 방송매체를 통한 일본 방송프로그램의 방영여부만을 개방정책 결정 사항으로 남겨 두게 된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방송프로그램은 방송을 목적으로 수입되고 있는 현실인 만큼, 방송허용은 곧 수입과 거의 직결된다고 하겠다.

일본 방송개방 정책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 방송프로그램 수입 영역이다.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개방 폭에 의해 허용되는 방송매체나 프로그램이 제한되는 만큼 일본 방송프로그램의 수입 역시 이에 준용해서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방송을 목적으로 수입되는 일본 방송프로그램의 추이를 살펴보는 것은 국내 방송매체를 통한 일본 방송프로그램의 유통 실태를 파악하는 유력한 지표가 될 수 있다.

문화관광부의 방송프로그램 수입액 통계(〈표 2〉참조)에 따르면, 일본 방송 프로그램의 수입(금액기준)은 2000년 이후 전반적으로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2003년에 급격하게 추락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1999년에 비해 2000년에는 약 90만 달러의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이렇게 2000년의 수입액이 급격하게 늘어난 요인은 무엇보다 IMF 위기탈출로 인한 구매력 회복, 2000년 6월에 발표된 일본 방송 개방에 따른 신규수요의 형성, 그리고 월드컵 축구에 따른 대일 관심 증대 등⁵⁾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그러나 2002년까지 커다란 변동 없이 유지되던 프로그램 수입은 2003년에 접어들면서 큰 폭으로 떨어졌다. 2002년의 225만 달러에서 80만 달러로 3배 가까이 대폭 축소된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프로그램 수입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 TV애니메이션이 방송사의 TV애니메이션 편성량의 절대적 감소, 국산 TV애니메이션 편성의 내실화 등으로 인해 수요가 급격하게 준 결과 등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구매단가가 높은 일본 영화의 TV방송권 구매가 국산 영화의 호조, 일본 영화의 부진 등으로 감소한 원인도 반영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2004년부터 일본 방송프로그램이 제한적이거나 해금됨에 따라 드라마 구입을 축으로 금년도에는 상당한 수입금액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⁶⁾

5)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3-06), '일본 대중문화 개방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21항

6) 일본 드라마의 시세는 현재 1회당 2,000~2,500달러 수준이다.

〈표 2〉 일본 방송프로그램 수입 추이

		총계		지상파 방송사		케이블TV 등	
1998년	금액	1,791	6.6%	1,639	10.7%	152	1.3%
	편수						
1999년	금액	1,429	5.0%	1,215	6.0%	214	2.5%
	편수						
2000년	금액	2,353	8.0%	1,803	6.6%	550	23.4%
	편수						
2001년	금액	2,337	11.4%	1,547	8.6%	790	32.8%
	편수	(815)		(564)		(251)	
2002년	금액	2,248	9.0%	627	3.3%	1,621	25.6%
	편수	(1,131)		(229)		(902)	
2003년	금액	799	2.8%	477	2.6%	322	3.3%
	편수	(614)		(168)		(446)	

주1) ()는 편수

주2) 단위 : 천 달러

출처 : 문화관광부 각 년별 방송프로그램 수출 통계.

또 하나의 특징은 2002년도 이후 뚜렷하게 케이블TV 및 위성방송에서의 대일프로그램수입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2001년도만 해도 지상파TV와 케이블/위성방송 간의 수입금액 차이는 근 두 배에 가까웠지만, 2002년도에는 오히려 케이블TV 및 위성방송으로부터의 대일수입금액이 지상파TV를 2.6배나 앞질렀으며 2003년도에도 양자간의 격차는 15만 5천 달러에 불과할 정도이다. 이것은 2002년 위성방송 출범에 따른 새로운 프로그램 유통창구의 출현으로 실질적으로 케이블TV나 위성방송이 일본 프로그램을 포함한 외국 프로그램의 주요 소비창구로 등장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수치라고 생각된다.

4. 일본 드라마의 편성실태

1) 일본 드라마의 편성 현황

(1) 채널별 편성현황

2004년 5월 31일 현재 케이블TV나 위성방송에 방송되었거나 방송되고 있는 일본 드라마는 총 40편이다. 2004년 5월 31까지 일본 드라마를 한 번 이상 편성한 적이 있는 채널은 총 9개 채널로 채널성격은 드라마 전문채널 3, 영화전문채널 3, 기타 3 채널로 구성되어 있다. 드라마 전문채널로는 MBC드라마넷, SBS드라마 플러스, 동양위성방송(OSB)이며 영화전문채널은 OCN, 홈CGV, MBC무비스가 일본 드라마를 정규 편성하고 있다. 그밖에 디지털 라이프 스타일 채널인 'e-channel', 여성 라이프 스타일 채널인 'On Style', 일본어 전문채널인 'DCN'이 일본 드라마를 정규 편성하고 있다(〈표-3〉 참조).

〈표 3〉 채널별 일본 드라마 편성 편수

채널명	MBC 드라마넷	MBC 무비스	SBS 드라마 플러스	OCN	온스타일	홈CGV	DCN	이채널	OSB
편수	10	3	4	9	8	3	2	2	1

주) '춤추는 대수사선', '반항하지마'는 MBC드라마넷과 MBC무비스에서 번갈아 방송되었으며 각 각으로 카운트했음.

채널별 편성 편수로 볼 경우, MBC드라마넷이 10편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OCN이 9편, 온 스타일이 8편, SBS드라마 플러스가 4편의 순으로 이어진다(〈표-3〉 참조). 참고로 KBS계열의 드라마 전문채널인 KBS드라마는 일본 프로그램을 편성한 적이 없다.

〈표 4〉 일본 드라마의 요일/시간대별 편성 현황

요일/시간대	9시	10시	11시	12시	20시	21시	23시	24시
월	1편	3편	7편	3편	2편	1편	6편	
화	1편	3편	7편	3편	2편	1편	4편	4편
수	1편	3편	7편	4편			6편	4편
목	1편	3편	7편	4편			4편	
금	1편		4편	3편			2편	
토				3편				
일				3편				
합계	5편	12편	32편	23편	4편	2편	22편	8편

주1) 상기의 편성 시간대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별 홈페이지 등을 참고로

작성하였지만, 각 방송채널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편성시간에 다소 변동이 생길 수 있다.
주2) 편의상 재방송 시간대는 제외하였음.

일본 드라마가 가장 많이 편성되는 시간대(본 방송 시간대 기준)는 오전 11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1월 5일에서 5월 31일까지 방송된 일본 드라마의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오전 11시간대에 32편이 몰려있으며 이는 일본 드라마전체의 약 30%에 해당된다.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편성된 시간대는 오전 12시대에 23편, 오후 11시대에 22편으로 나타났다. 오전 11시와 12시, 그리고 오후 11시대에 편성된 일본 드라마를 합치면 전체 108편 가운데 77편이 편성되어 약 70%의 집중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편성시간의 집중도는 지상파TV와의 경쟁관계, 해당 프로그램이 타겟으로 삼고 있는 연령층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들 채널의 주 공략 대상은 대체로 지상파TV의 경쟁우위 시간대를 피하면서 오전 11시와 12시대는 젊은 주부층을, 그리고 오후 11시 이후의 시간대는 20,30대 직장인 및 학생을 메인 타겟으로 삼고 있다.

본 방송시간을 기준으로 살펴볼 경우, 일본 드라마의 편성 패턴은 크게 주 2회 편성, 1회 편성, 평일 연속 편성, 주말 편성 등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인 패턴은 전체 42편 가운데 주 2회 편성이 25편으로 절반 이상이며 평일연속 편성⁷⁾이 11편, 주1회 편성이 6편의 순으로 되어 있다. 일본 드라마의 교체주기는 대개 일본 드라마가 10-12회인 관계로 주 2회 편성일 경우, 대략 40일 이내에서 개편되고 있다. 주 1회 편성 시에는 약 두 달간 편성되며 평일 연속 편성인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새로운 드라마가 선을 보이고 있다.

일본 드라마의 편성시간대는 새로운 일본 드라마가 방송되더라도 대부분 고정되어 있다. 가령 OCN의 경우, 주 2회 편성(매주 월·화 또는 수·목 단위)시에는 평일 오전 10시, 평일 연속 편성 시에는 오전 11시대로 시간대가 정해져 있다. SBS드라마 플러스는 주 2회 편성체제 하에서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오후 12시 이후의 시간대를 일본 드라마에 정기적으로 할애하고 있다. MBC 드라마 넷의 경우는 주 2회(매주 월·화, 수·목 단위)와 주 1회 편성(매주 금요일)을 축으로 대략 평일 오후 11시를 일본 드라마 편성 시간대로 확보해놓고 있다. MBC무비스는 토·일요일 연속 편성

7)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평일 연속 편성이 8편,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의 편성이 3편.

체제로 오전 12시대를 일본 드라마 시간대로 고정시키고 있다.

온 스타일은 월~금요일 평일 연속 편성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시간대는 오전 11시대와 12시대를 일본 드라마 편성에 할애하고 있다. 그밖에 홈CGV는 월·화요일 오후 8시 45분을 고정 시간대로 DCN은 수요일 밤 10시대, 이 채널은 월요일 오후 11시 30분대, OSB는 월~금 오전 9시대로 일본 드라마를 고정편성하고 있다.

(2) 일본 드라마의 유형과 특징

2004년 5월말까지 국내에 소개된 일본 드라마 유형을 살펴보면, 젊은 청춘남녀의 일상과 러브스토리를 그리고 있는 드라마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표 5〉 참조). 본 조사에 따르면, 총 40편 가운데 27편(약 68%)이 러브스토리를 이야기의 중심축으로 삼고 있을 정도로 비중이 높다. 이러한 편성경향은 타 드라마 유형보다 상대적으로 젊은 층 취향의 러브스토리가 대량생산되고 있는 일본내 제작 풍토와 상당부분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젊은 층을 메인 타겟으로 삼고 있는 러브스토리라고 하더라도 소개된 일본드라마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고 세분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가령 '중매결혼', '내 사랑 사쿠라코' 등은 코믹터치로, '사토라레'와 '롱 러브레터'는 판타지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으며, '고교교사'는 순애보적 멜로기조이다.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설정도 매우 다양한 편이다. 가령 불령을 매개로 한 러브스토리(골든 볼), 경찰을 무대로 한 러브스토리(체포하겠어), 원조교제와 AIDS를 축으로 한 러브스토리(신이시여 조금만 더), 초능력자를 둘러싼 사건과 러브스토리를 축으로 한 '사토라레', 고교교사와 여고생의 순애보를 그린 '고교교사', 요리를 소재로 한 로맨스 드라마 '마이 리틀 셰프'와 '런치의 여왕' 등은 국내 드라마와 비교해볼 때 매우 다양하고 신선한 소재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러브스토리라는 보편적인 테마를 다양한 스펙트럼 속에서 담아내고 있는 일본 드라마제작의 저변을 시사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러브스토리를 포함하는 대부분의 일본 드라마에서 코믹적 터치와 판타지적 요소를 즐겨 쓰는 것은 우리의 드라마 분위기와 비교해 커다란 차이점 중의 하나라고

〈표 5〉 일본 드라마의 유형

드라마 유형	드라마명	비고	드라마 유형	드라마명	비고
러브 스토리	러브 레볼루션		러브 스토리	롱 러브레터	판타지
	파워 어브 러브			런치의 여왕	코믹
	사토라레	휴먼/코미디/ 판타지		칩 러브	
	퍼스트 러브			체포하겠어	
	한 여름의 메리크리스마스			101번째 프로포즈	멜로
	신이시여 조금만 더			너의 손이 속삭이고 있어	휴먼/멜로
	이상적 결혼	코믹		고교교사	멜로
	골든 볼	코믹/스포츠	형사	더블 스코어	
	오버타임			춤추는 대수사선	
	성형미인	코믹		케이조쿠	공포
	중매결혼	코믹	학원	고쿠센	코믹
	속도위반 결혼			반항하지마	코믹
	내사랑 사쿠라코	코믹		라이온 선생	
	도쿄 러브 스토리			트릭	
	2000년의 사랑	범죄	미스터리	기묘한 이야기	공포
	버스 스톱	코믹(코미디 인 주인공)		음양사	판타지
	퍼스트 타임	코믹	사극	길 위의 화가	휴먼
	봄의 로맨스		가족	나이트 হাস피탈	병원
	사랑에 빠져봐	코믹	기타	파이팅 걸	
	사랑따윈 필요없어				
마이리틀 웨프					

할 수 있다. 국내에 소개된 일본 드라마의 대부분은 진중한 분위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가벼운 트렌디 분위기를 코믹터치로 보다 강조하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 예를 들면 청춘 로맨스 드라마인 ‘이상적 결혼’, ‘중매결혼’, ‘성형미인’, ‘내사랑 사쿠라코’, ‘골든 볼’, 학원 드라마인 ‘고쿠센’, ‘반항하지마’ 등은 코미디적인 요소, ‘사토라레’와 ‘롱 러브레터’, 사극인 ‘음양사’는 판타지적 요소를 적절하게 섞고 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만화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 드라마가 많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고쿠센’, ‘반항하지마’, ‘롱 러브레터’, ‘너의 손이 속삭이고 있어’, ‘사토라레’, ‘도쿄 러

브스토리' 등은 인기만화를 원작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만화독자를 TV 시청자로 끌어들이려는 미디어 믹스적인 마케팅이 일반화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것과 함께 드라마의 소재 찾기를 만화 원작에서 구한다는 발상이 쉽사리 그리고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제작 풍토라는 점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고쿠센'이나 '반항하지마' 등은 정통 학원 드라마의 전형적 틀에서 벗어나 만화적 상상이나 코믹 기법 등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의 정통 학원 드라마와는 확연하게 다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양적으로 훨씬 적지만, 학원 드라마계열이나 미스터리, 형사드라마 등도 다수 방송되고 있는 점도 차이점 중의 하나이다. 특히 공포 형사물인 '케이조쿠'나 미스터리물인 '트릭', 공포물인 '기묘한 이야기', 코믹 학원물인 '반항하지마', '고쿠센'과 같은 드라마는 국내에서 보기 어려운 장르라고 할 수 있다.

2) 일본 드라마의 자국내 방송년도와 시청률

(1) 일본 드라마의 방송년도와 방송국

일본 드라마의 자국내 방영년도는 오래된 것부터 최신 것까지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OSB에서 방송되고 있는 '길 위의 화가'는 국내에서 소개된 일본 드라마 가운데 가장 오래된 드라마로써 일본에서 1980년에 방송된 드라마이다. 아울러 가장 최근에 방송되고 있는 드라마로는 '라이언 선생'으로 니혼TV를 통해 2003년 10월에 방송된 최신작이다. 하지만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인 것은 2002년도에 방송된 일본 드라마로 모두 16편(40%)이나 되었다. 비교적 최근 드라마라고 할 수 있는 2003년도 이후의 작품은 2편에 불과해 신선감이 떨어지는 프로그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이는 일본 내에서 충분히 원 소스 멀티 유스(one source multi use)를 거친 다음에 후속시장인 해외 판매로 이어지는 일반적인 흐름, 아울러 복잡하고 까다로운 저작권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적 인 터벌 등으로 인해 국내에 일본 드라마 최신작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표 6〉 일본 드라마의 일본내 방영년도별 분포

년 도	1980	1991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합계
편 수	1	2	4	2	3	6	4	16	2	40

국내에서 가장 많이 소개된 드라마는 후지TV에서 방송된 드라마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 소개된 총 40편의 일본 드라마 가운데 절반을 넘어서는 22편이 후지TV에서 방송된 드라마였다. 그 다음이 TBS(8편), TV아사히(4편), 니혼TV(4편), NHK(2편)의 순이었다. 이 같은 결과는 후지TV가 소위 트렌디 드라마 계열에 강한 방송국이라는 일면도 있지만, 후지TV와 제휴관계에 있는 MBC가 자사계열의 MBC 드라마넷과 MBC무비스를 통해 후지TV의 드라마를 다수 내보내고 있는 결과로 풀이된다. MBC드라마넷(10편)과 MBC무비TM(3편)에서 소개된 일본 드라마는 모두 후지TV에서 방송된 드라마이다. 반면 SBS드라마 플러스는 니혼TV와 제휴관계를 맺고 있지만, 니혼TV 2편, 후지TV 1편, TBS 1편으로 프로그램 구매선이 다양한 편이다.

〈표 7〉 일본내 방송사별 일본 드라마 편수 분포

방송사	NHK	니혼TV	TBS	후지TV	TV아사히	합계
편 수	2	4	8	22	4	40편

주) '춤추는 대수사선', '반항하지마'는 MBC드라마넷과 MBC무비스에서 두 번 방송되었지만 각각 1편으로 카운트.

(2) 일본 드라마의 일본내 시청률

국내에 소개된 일본 드라마 가운데 일본에서 가장 높은 평균 시청률을 기록한 프로그램은 '반항하지마'(일본명 GTO)로 28.5%이며 그 다음이 '내사랑 사쿠라코'로 26.4%를 기록했다. 그밖에도 평균 시청률 20%이상을 기록한 드라마로는 '101번째의 프로포즈'(23.6%), '도쿄러브스토리'(22.9%), '신이시여 조금만 더'(22.5%), '오버타임'(20.1%) 등이 있다. 평균 시청률 20%가 넘는 드라마는 6개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34편의 드라마는 모두 20%이하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다만 우리와 달리

〈표 8〉 일본 드라마의 일본내 시청률

드라마명	채널명	평균 시청률	드라마명	채널명	평균 시청률
반항하지마	후지TV	28.5%	칩러브	TBS	13.7%
내사랑 사쿠라코	후지TV	26.4%	파이팅 걸	후지TV	13.3%
101번째 프로포즈	후지TV	23.6%	퍼스트 타임	후지TV	13.3%
도쿄 러브 스토리	후지TV	22.9%	골든 볼	니혼TV	12.6%
신이시여 조금만 더	후지TV	22.5%	한 여름의 메리크리스마스	TBS	11.7%
오버타임	후지TV	20.1%	성형 미인	후지TV	11.5%
런치의 여왕	후지TV	19.1%	봄의 로맨스	후지TV	11.4%
춤추는 대수사선	후지TV	18.0%	고교교사	TBS	10.8%
러브 레볼루션	후지TV	17.4%	더블 스코어	후지TV	10.6%
고쿠센	니혼TV	17.4%	퍼스트 러브	TBS	10.2%
중매결혼	후지TV	17.0%	나이트 হাস피탈	니혼TV	9.4%
버스 스톱	후지TV	16.9%	음양사	KHK	9.2%
파워 오브 러브	후지TV	16.9%	체포하겠어	TV아사히	9.1%
롱 러브레터	후지TV	16.4%	사토라레	TV아사히	8.9%
2000년의 사랑	후지TV	16.1%	사랑따윈 필요없어	TBS	7.7%
속도위반결혼	후지TV	15.9%	사랑에 빠져봐	NHK	6.7%

*자료 : 일본 비디오 리서치사, 관동지구 평균 시청률

지상파TV만 7개 채널이 시청률을 경쟁하는 일본의 방송구조 속에서 시청률 20% 전후라고 하면 나름대로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한일간 시청률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평균 시청률 20%를 넘은 일본 드라마는 국내에서의 시청률은 전반적으로 저조했으며 오히려 평균 시청률 17.4%의 '고쿠센'이나 평균 시청률 8.9%의 '사토라레'가 선전했다고 할 수 있다. 단락적인 접근이기는 하지만, 일본에서의 시청률이 반드시 국내에서도 비례해서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다만 '대박'이라고 하는 30% 이상의 대형 히트 드라마는 아직 국내에서 방송되지 않은 상황이라 쉽게 예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5. 일본 드라마의 시청률과 수용자 반응

1) 일본 드라마의 시청률

(1) 일본 드라마의 시청률

2004년 5월말 현재 40편의 일본 드라마가 방송되었거나 방송되고 있지만, 총체적으로 국내 수용자의 반응은 예상외로 저조한 편이다. 일본 드라마는 일본 방송개방 논의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안의 중의 하나였던 것이 사실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래서 일본 드라마 개방에 대해 신중론이 앞섰고 결과적으로 케이블TV와 위성방송에만 제한적으로 개방되었다.

케이블TV 및 위성방송에 국한된 개방이기는 하지만, 일본 드라마의 국내 수요는 어느 정도 높을 것으로 예상했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예상외로 시청률이 낮았다. 단적으로 총 40편의 드라마 가운데 전국 가구 시청률 1%를 넘는 성공작에 해당되는 드라마는 '고쿠센'(1.2432) 단 한 편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나름대로의 반향이 예상되었던 '춤추는 대수사선'(0.6938)이나 '반항하지마'(0.5962) 등도 모두 1%를 밑도는 결과를 보였다(<표 9> 참조).

'고쿠센'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일본 드라마의 시청률이 예상을 밑돌고 있는 요인은 다각적으로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시청자들이 한일간의 드라마 제작수준이나 드라마 형식에서 커다란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그 동안 국내 드라마 제작도 질적 성장을 거듭해오면서 탄탄한 내공을 쌓아왔기 때문에 일본 드라마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는 논거이다. 예를 들면 국내에서도 1990년대 초부터 일본드라마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트렌디 드라마를 제작·방송해왔기 때문에 일본 트렌디 드라마를 시청하더라도 커다란 신선감이나 매력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가정이다. 오히려 남녀간의 미묘한 감정을 다루는 멜로 부문에선 국내의 드라마가 강하다는 지적도 있다.⁸⁾

두 번째는 한일관계의 악화로 비매니아 층의 일본 드라마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데 실패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일본 드라마에 대한 시청구조는 크게 매니아층과 비매니아 층으로 구분지어볼 수 있는데 매니아층은 과거사나 한일관계와 같은 외부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충성도가 높은 시청자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

8) 문화일보 2004년 2월 3일자

〈표 9〉 일본 드라마의 전국가구 시청률

드라마명	채널명	시청률
고쿠센	SBS드라마 플러스	1.2432
101번째 프로포즈	MBC 드라마넷	0.7852
쫓추는 대수사선	MBC 드라마넷	0.6938
반항하지마	MBC 드라마넷	0.5962
트릭	OCN	0.5814
사토라레	OCN	0.5639
내사랑 사쿠라코	MBC 드라마넷	0.5617
성형 미인	MBC 드라마넷	0.5509
속도위반 결혼	MBC 드라마넷	0.543
퍼스트 러브	OCN	0.4199
파이팅 걸	MBC 드라마넷	0.4099
반항하지마	MBC 무비스	0.4004
도쿄 러브 스토리	MBC 드라마넷	0.3961
러브 레볼루션	OCN	0.3214
골든볼	SBS드라마 플러스	0.3027
케이조쿠	OCN	0.2993
신이시여, 조금만 더	OCN	0.2951
런치의 여왕	홈CGV	0.2889
라이온 선생	OCN	0.2863
중매 결혼	MBC 드라마넷	0.2584
한 여름밤의 메리크리스마스	OCN	0.2531
오버 타임	SBS드라마 플러스	0.2515
이상적 결혼	SBS드라마 플러스	0.2417
2000년의 사랑	MBC 드라마넷	0.2309
음양사	이 채널	0.2273
파워 오브 러브	OCN	0.21
기묘한 이야기	이 채널	0.1948
롱러브레터	홈CGV	0.1869
칩 러브	홈CGV	0.1574
더블 스코어	MBC 무비스	0.1416
쫓추는 대수사선	MBC 무비스	0.1268
봄의 로맨스	온 스타일	0.0233
나이트 হাস피탈	온 스타일	0.0224
버스 스톱	온 스타일	0.0218
퍼스트 타임	온 스타일	0.0134
사랑 따윈 필요없어	온 스타일	0.0112
고교교사	온 스타일	0.0047
너의 손이 속삭이고 있어	온 스타일	0.0005

*5월 31일까지의 시청률 평균

출처 : 닐슨 미디어 리서치

매니아 층은 한일관계 등의 외부환경에 영향을 받기 쉬운 시청자군이라고 할 수 있다. 금년 초부터 일본 총리의 야스구니 신사참배, 독도기념우표 발행 등을 둘러싼 한일간의 공방 등은 비매니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 국민의 일본 드라마에 대한 관심을 반감시키기에 충분한 화젯거리였다고 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요인들이 중복되면서 일본 드라마의 시청률 부진을 낳지 않았을까 풀이된다.

하지만 현 단계에서 일본 드라마의 연착륙 실패를 단정짓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최신작이 아직 유입되지 않았을 뿐더러 30%를 넘는 대형 히트작품도 방송되지 않았다. 더욱이 일본 배우의 국내 지명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상태인 만큼, 현단계에서 높은 시청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한편 예상외로 '고쿠센'이 시청률에서 선전한 배경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학원 드라마에서 조직폭력배의 딸이 고교 선생님이 되어 불량학생을 교화시켜 나가는 설정은 국내 드라마로서는 도저히 생각하기 어려운 신선한 소재였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마츠모토 준과 나카마 유키에와 같은 국내 지명도가 있는 스타의 기용도 시청률 상승에 기여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미 영화 '링'에서 국내 노출 전력이 있는 나카마 유키에와 특히 미소녀 그룹 아라시의 멤버인 마츠모토 준은 국내 청소년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배우들이다. 세 번째는 만화가 원작인 '고쿠센'을 이미 활자로 접한 국내 젊은 층의 상당수가 TV시청으로 전이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만화와 TV간의 미디어 믹스 전략은 일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마케팅으로 국내 출판 만화시장이 일본 만화에 잠식되어 있는 상황에서 제2의 '고쿠센' 가능성은 언제든지 출현할 수 있을 것이다.

(2) 일본 드라마의 주요 시청층

국내에서 소개된 일본 드라마는 대부분 젊은 층 취향의 드라마가 많았다는 점은 앞서 지적했다. 이러한 경향은 실제로 시청 연령층 조사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 닐슨 미디어 리서치의 자료(〈표 10〉 참조)에 따르면, 일본 드라마의 주요 연령층은 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에서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는 일본 드라마는 총 35편 가운데 19편으로 절반 이상을 점하고 있다. 이어 10대가 7편, 30대 7

〈표 10〉 일본 드라마의 연령별 시청률 분포

프로그램명	채널	10대	20대	30대	40대
런치의 여왕	HOME CGV	0.104	0.190	0.086	0.090
롱 러브레터	HOME CGV	0.050	0.074	0.097	0.075
칩 러브	HOME CGV	0.030	0.032	0.096	0.083
라이온 선생	OCN	0.082	0.123	0.127	0.118
러브 레볼루션	OCN	0.035	0.125	0.176	0.108
사토라레	OCN	0.157	0.316	0.272	0.239
신이시여 조금만 더	OCN	0.031	0.128	0.119	0.091
케이조쿠	OCN	0.041	0.091	0.203	0.100
트릭	OCN	0.331	0.242	0.183	0.214
파워 오브 러브	OCN	0.020	0.141	0.072	0.096
한여름의 메리크리스마스	OCN	0.086	0.130	0.129	0.080
고쿠센	SBS 드라마+	1.240	0.383	0.433	0.521
골든 볼	SBS 드라마+	0.139	0.125	0.133	0.083
오버 타임	SBS 드라마+	0.123	0.138	0.147	0.114
이상적 결혼	SBS 드라마+	0.134	0.060	0.073	0.127
도쿄 러브스토리	MBC드라마넷	0.096	0.249	0.111	0.066
내사랑 사쿠라쵸	MBC드라마넷	0.227	0.658	0.254	0.170
춤추는 대수사선	MBC드라마넷	0.228	0.580	0.321	0.309
속도 위반결혼	MBC드라마넷	0.211	0.624	0.174	0.173
2000년의 사랑	MBC드라마넷	0.140	0.183	0.119	0.119
중매결혼	MBC드라마넷	0.094	0.163	0.123	0.148
성형미인	MBC드라마넷	0.067	0.460	0.188	0.279
파이팅걸	MBC드라마넷	0.166	0.187	0.159	0.153
반항하지마	MBC드라마넷	0.397	0.439	0.224	0.145
101번째 프로포즈	MBC드라마넷	0.059	0.032	0.100	0.057
더블 스코어	MBC MOVIES	0.049	0.064	0.057	0.067
반항하지마	MBC MOVIES	0.362	0.198	0.114	0.078
춤추는 대수사선	MBC MOVIES	0.015	0.140	0.050	0.040
버스 스톱	온스타일	0.017	0.032	0.033	0.014
나이트하스피탈	온스타일	0.027	0.029	0.027	0.014
봄의 로맨스	온스타일	0.020	0.040	0.031	0.007
고교교사	온스타일	0.009	0.001	0.004	0.006
퍼스트타임	온스타일	0.031	0.006	0.014	0.014
기묘한 이야기	e-channel	0.027	0.040	0.090	0.102
음양사	e-channel	0.036	0.096	0.083	0.060

*조사기간 : 2004.1.5-5.31

**출전 : 닐슨 미디어 리서치

편, 40대도 2편이나 포함되어 있다. 40대의 2편을 제외하고는 젊은 층이라고 할 수 있는 10대에서 30대가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다. 일본 드라마 가운데 가장 시청률이 높았던 '고쿠센'의 경우, 학원물이라는 점을 반영해 10대 시청자들이 월등하게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에 의외로 40대가 차지했으며 20대는 가장 낮은 시청률 분포를 보였다. 연령별 시청률에서 10대의 시청률은 20대보다 약 3배 이상 많은 수치를 나타냈다. 학원물인 MBC무비스의 '반항하지마' 역시 10대 연령층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반항하지마'의 경우, MBC 드라마넷과 MBC무비스에서 방송되었는데 최고 시청률 연령층이 다르게 나왔다는 점이다. '반항하지마'는 MBC드라마넷에서 20대가 최고 시청률을 보였으나 MBC무비스에서는 10대가 가장 높게 나왔다. 이는 채널성격에 따라 시청연령층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시청자의 반응

일본 드라마 시청자의 반응을 비교적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곳이 인터넷 시청자 게시판이다. 다만 여기서는 시청자 게시판이 적정 샘플로써 갖는 기본적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어디까지나 시청자 반응의 단면을 가늠하는 수준에서 대체적인 경향과 특기사항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고쿠센', '춤추는 대수사선', '내사랑 사쿠라코'의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시청자 의견이나 소감을 개관해 본 결과⁹⁾, 가장 많은 의견이 제시된 드라마는 '고쿠센'으로 총 443건의 의견이 게재되었으며 그 다음이 173건의 '춤추는 대수사선', '내사랑 사쿠라코'는 127건의 글이 올라왔다. 시청자 의견의 대부분은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유료방송시장의 특성상 시청자들이 다양한 채널 가운데에서 선택적으로 시청할 수 있는 환경에 있는 만큼, 긍정적 의견의 게시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아울러 설사 일본 드라마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시청자가 있더라도 도중에 시청을 포기할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상대적으로 부정적 의견이 시청자 게시판에 게시될 확률은 감소하게 되는 요인도 작용한 것으로

9) 내사랑 사쿠라코(1.5-2.16), 춤추는 대수사선(1.6-3.26), 고쿠센(2.11-3.24)과 관련 해당 프로그램 홈 페이지의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시청자 의견을 토대로 조사.

여겨진다.

시청자 게시판에서 제시된 일본 드라마 내용 자체에 대한 국내 시청자의 반응은 그 양과 상관없이 뜨거운 편이었다. 긍정적 의견으로서는 (너무)재미있다는 식의 내용이 대부분이었는데 다만 평가 대상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한 것보다는 짤막하게 좋았다고 평가하는 의견이 많았다. 아울러 재미있다고 하는 정서적 반응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방송사업자에게 재방송을 요청하는 경우도 상당수에 이르렀다. 이것은 국내 드라마와는 달리 일본 드라마의 대부분이 국내에서 '다시보기'와 같은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은 배경과도 깊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구체적인 사례로 '내사랑 사쿠라코'에 대한 시청자의 반응을 소개하면 긍정적 평가로써는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 재미있으니까 재방을 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이 많았으며 배우의 평가에 대해서는 마츠시마 나나코, 야다 아키고의 외모에 대해, 음악에 대해서는 주제가에 대한 긍정적 의견이 일부 있었다. 한편 소수나마 부정적인 평가도 있었는데, 가령 '노팅 힐' 장면과 '내사랑 사쿠라코'의 장면이 유사하고(2004-01-06), 국내 배우보다 일본 배우의 용모가 떨어진다고(2004-01-07)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요조숙녀'와 '내사랑 사쿠라코'의 비교를 언급하는 시청자의 의견도 일부 있었는데 연기력(2004-01-06)이나 스피디한 전개(2004-01-06) 등에서 원작의 우위를 인정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한편 일본 드라마 내용에 대한 의견이 아니라 드라마 외적인 요소, 즉 방송편성 주체에 대한 불만이나 부정적인 의견도 상당히 많았다. 가령 자막번역의 오류나 불규칙한 편성시간에 대한 불만은 세 드라마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시청자의 의견은 상당수에 이르렀다. 특히 자막번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도 있었는데 이는 일본 드라마 시청자의 일부가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거나 관심을 갖고 있는 상당한 일본어 능력의 소유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이와 같은 방송사업자에 대한 오역 및 고무줄 편성에 대한 지적은 상대적으로 일본 드라마에 대한 관심의 표출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2) 일본 배우의 인기와 수용

드라마 자체는 일단 종영되면 이의 열기가 금새 식어버리는 특징을 갖는다. 그러

나 드라마에 출연했던 배우들은 드라마로 규정되었던 시공간을 초월해 그 인기는 당분간 지속된다. 드라마 자체의 인기가 정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출연했던 배우의 인기는 동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드라마의 인기로부터 파생된 스타의 탄생은 문화적으로나 산업적으로 주목의 대상이 되곤 한다.

(1) 출연 배우의 노출도

드라마 시청과 출연배우는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출연배우의 지명도는 드라마 시청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그 동안 영화를 제외하고 일본 배우들이 정기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었다. 현재로써는 일본 드라마가 개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인 만큼, 일본 배우들의 국내 지명도는 전반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주연급 배우의 노출기회가 많다는 것은 인기 확보를 위한 지름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 배우의 노출도를 살펴보는 것은 국내 지명도나 향후 인기를 전망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의 하나가 될 수 있다. 5월말까지 소개된 일본 드라마 가운

〈표 11〉 일본 주연급 배우의 드라마 노출도 현황

주연급 배우	출연 작품	총 편수
나카마 유키에	트릭, 고쿠센, 나이트 하스피탈, 신이시여 조금만 더	4
소리마치 다카시	더블 스코어, 반항하지만, 오버 타임, 칩 러브	4
쯔쯔미 신이치	파워 어브 러브, 내사랑 사쿠라코, 런치의 여왕	3
야다아키코	파워 어브 러브, 내사랑 사쿠라코, 마이 리틀 웨프	3
후카다 교코	파이팅 걸, 퍼스트 러브, 신이시여 조금만 더	3
다케노우치 유다카	한 여름의 메리 크리스마스, 이상적 결혼, 속도위반 결혼	3
와다베 아쓰로	케이조쿠, 사랑따윈 필요없어, 퍼스트 러브	3
가네시로 다케시	골든 볼, 2000년의 사랑, 신이시여 조금만 더	3
후지키 나오히토	러브 레볼루션, 퍼스트 타임, 고교교사	3
오시오 마나부	러브 레볼루션, 더블 스코어, 봄의 로맨스	3

데 가장 많은 노출도를 보인 배우는 나카마 유키에가 4편, 소리마치 다카시 역시

4편에서 주연급으로 활약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1〉 참조). 소리마치는 ‘반항하지 마’, ‘더블 스코어’, ‘오버 타임’, ‘칩러브’에서, 나카마 유키에는 ‘고쿠센’, ‘트릭’, ‘나이트 호스피탈’, ‘신이시여 조금만 더’ 등에서 주연급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밖에도 세 작품의 주연급으로 활약한 배우로는 후지키 나오히토, 쓰쓰미 신이치, 다케노우치 유다카, 가네시로 다케시, 오시오 마나부, 와다베 아즈로, 야다 아키코, 후카다 교코 등이 있다.

(2) 일본 배우의 팬 카페와 팬 페이지 개설 현황

드라마의 시청행위 그 자체는 드라마가 시작되어 종영되면 대개 끝나버린다. 그러나 드라마로부터 유발되는 갖가지 반응과 행위는 드라마가 종영되더라도 일정부분 지속력을 갖고 다양한 국면에서 발현된다. 이것이 대량으로 표현되는 장은 다름 아닌 인터넷영역이다. 더욱이 일본 드라마의 주 시청층이라고 할 수 있는 10대에서 30대까지의 연령층은 인터넷 세대라고 불릴 정도로 높은 리터라시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그런 만큼, 인터넷 영역을 중심으로 일본 드라마시청과 관계되는 국내 반응과 행위를 파악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일본 드라마의 파급효과는 다양한 국면에서 전개되고 있을 것으로 상정된다. 그 중에서 대표적이며 접근이 용이한 것이라고 한다면, 출연배우에 대한 반응일 것이다. 이러한 출연배우의 국내 반응정도를 가늠하기 위해서 적절한 지표가 될 수 있는 것이 인터넷의 팬 카페와 팬 페이지를 들 수 있다.

2004년 5월 11일 현재 다음 카페에서 일본 배우¹⁰⁾의 팬 카페 개설 수를 조사(〈표 12〉 참조)한 바에 따르면, ‘고쿠센’의 마츠모토 준의 팬 카페가 42개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영화 ‘배틀 로얄’과 ‘사랑 따윈 필요없어’로 국내에 소개된 후지와라 타츠야(41), 한일공동제작 드라마 ‘프렌즈’, ‘퍼스트 러브’, ‘신이시여 조금만 더’, ‘파이팅 걸’의 후카다 교코(30), ‘고쿠센’과 ‘고교교사’의 나리미야 히로키(26), ‘고쿠센’, ‘나이트 호스피탈’, ‘트릭’, ‘신이시여 조금만 더’의 나카마 유키에(21), ‘고쿠센’, ‘반항하지 마’의 오구리 슌(15), ‘롱 러브레터’, ‘런치의 여왕’의 야마시타 토모히사(13), 영화 ‘사

10) 상기의 일본 배우 가운데 일부는 가수 등을 겸하고 있지만, 활동비중, 국내에 소개된 작품 등을 감안해 배우로 분류하였다.

‘토리레’, ‘배틀 로얄’, ‘철도원’, ‘키즈 리턴’의 안도 마사노부(11), 시세이도 샴푸CF로 국내에 소개된 다키자와 히데아키(9)순으로 이어진다.

팬 카페 개설수 TOP15(〈표 12〉 참조)에 포함된 배우들을 살펴보면, 모두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연령 분포를 보이는 젊은 배우들이며 남자 배우 11명, 여배우 4명으로 남자 배우의 팬 카페 개설이 활발하다고 할 수 있다. 이들 대부분은 국내에 소개된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국내 지명도를 높인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케이블TV에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얻었던 ‘고쿠센’에 출연했던 배우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점은 이를 뒷받침한다. 가령 마츠모토 준, 나카마 유키에, 오구리 슌, 나리미야 히로키 등은 모두 고쿠센 등의 인기를 기반으로 더욱더 국내 지명도를 넓힌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특이한 것은 국내에 뚜렷하게 소개된 적이 없음에도 의외로 팬 카페가 많이 개설된 배우가 있다는 점이다. 가령 다키자와 히데아키, 사쿠라이

〈표 12〉 일본 배우 팬 카페 개설수 랭킹

순위	배우	팬카페 개설 수
1	마츠모토 준	42개
2	후지와라 타츠야	41개
3	후카다 료코	30개
4	나리미야 히로키	26개
5	나카마 유키에	21개
6	오구리 슌	15개
7	야마시타 토모히사	13개
8	안도 마사노부	11개
9	다키자와 히데아키	9개
10	마츠 타카코	7개
10	마츠시마 나나코	7개
11	사쿠라이 쇼	6개
11	기무라 타쿠야	6개
11	쿠보즈카 요스케	6개
11	가네시로 다케시	6개

*상기 수치는 다음 카페에서 2004년 5월 11일을 기준으로 해당 배우 이름 검색을 통해 얻은 결과임.

쇼, 기무라 다쿠야 등은 국내에 드라마나 영화 등을 통해 스포트라이트를 받거나 지속적으로 소개된 적이 없는 배우들이다. 그럼에도 이들의 팬 카페가 다수 개설된

것은 기존 방송드라마나 영화 등의 수단을 통하지 않고 인터넷, 잡지 및 방송광고와 같은 다양한 오프라인 루트 등을 통해 이들에 관한 각종 정보를 얻고 팬 카페의 개설로 이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또 하나의 특징은 미소년 중심의 연예 기획사인 자니스 사무소 소속 배우들이 대거 진입해있다는 점이다. 가령 마츠모토 준, 야마시타 토모히사, 다키자와 히데아키, 사쿠라이쇼, 기무라 다쿠야는 모두 자니스 사무소 소속 배우들이다. 적어도 팬 카페를 통해서 살펴본 결과, 국내 노출과 팬 카페 개설수와는 일정부분 상관관계가 확인되고 있으며 특히 자니스 사무소 소속 미소년 배우를 중심으로 인기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팬 페이지의 개설수를 통해서도 일본 배우들의 인기도를 파악해볼 수 있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팬 페이지의 개설 수를 조사(〈표 13〉 참조)한 바에 따르면, 팬 카페 개설수와는 다소 다른 결과치를 보이고 있다. 가령 팬 페이지에서는 니노미야 카즈나리가 19개로 가장 많은 팬 페이지를 갖고 있었으며 팬 카페에서 1

〈표 13〉 일본 배우의 팬 페이지 개설 현황

순위	배우	팬 페이지 개설 수
1	니노미야 카즈나리	19개
2	야마시타 토모히사	15개
3	사쿠라이 쇼	14개
4	마츠모토 준	8개
5	다키자와 히데아키	6개
6	쿠사나기 츠요시	5개
7	나리미야 히로키	4개
8	다케우치 유코	3개
8	토키와 타카코	3개
8	사카이 노리코	3개
11	기무라 타쿠야	2개
11	후카다 료코	2개
11	마츠시마 나나코	2개
11	쿠보즈카 요스케	2개
11	오구리 슌	2개

* 2004년 6월4일 현재

** 상기 수치는 네이버에서 해당 배우이름으로 검색한 결과.

위였던 마츠모토 준은 8개로 4위에 머물러 있다. 그 다음이 야마시타 토모히사(15), 사쿠라이쇼(14), 마츠모토 준(8), 다키자와 히데아키(6), 영화 '환생'의 구사나기 츠요시(5), 나리미야 히로키(4), '런치의 여왕'과 '환생'의 다케우치 유코(3), '속도위반 결혼', '롱 러브레터'의 토키와 타카코(3), '주온 2'의 사카이 노리코의 순으로 되어 있다. 다만 전반적으로 약간의 순위 변동과 팬 카페에 없는 배우들이 몇몇 포함되어 있지만, 팬 페이지와 팬 카페의 개설 배우의 면면은 대개 엇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배우의 구성 면에서 몇 가지 특징을 찾을 수 있다. 팬 카페와 마찬가지로 팬 페이지 역시 10대에서 30대 초반까지의 젊은 배우로 개설되어 있으며 남녀배우의 구성 비도 남자배우 10명, 여배우 5명으로 비슷하다. 아울러 니노미야 가즈나리, 마츠모토 준, 야마시타 토모히사, 구사나기 츠요시, 다키자와 히데아키, 사쿠라이쇼, 기무라 다쿠야 등 자니스 계의 배우들이 팬 카페의 5명보다 많은 7명이나 대거 포진해 있는 점은 국내에서도 자니스 사무소의 브랜드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4〉 주요 일본 드라마 카페 개설 현황

드라마	팬카페	최다 팬 카페와 회원수
퍼스트 러브	6개	725명/Firstlove(퍼스트러브)
고쿠센	68개	5588명/日本①⑤고쿠센
야마토나데시코	4개	7503명/야마토나데시코
춤추는 대수사선	14개	8662명/★춤추는대수사선★
반항하지마	19개	3286명/GTO드라마의 모든것!
롱러브레터	3개	1690명/롱 러브레터 표류교실
기묘한 이야기	4개	114명/공포단막극 기묘한이야기 공식카페
음양사	6개	1018명/음양사

* 2004년 5월11일 기준

** 상기수치는 다음카페에서 해당 일본 드라마 명으로 검색해 얻은 결과임.

일본 드라마가 소개되면서 국내에서 드라마자체에 대한 팬 카페도 대거 개설되고 있다. 드라마 자체의 팬 페이지는 오프라인에서의 시청률과 비교적 연동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가령 높은 시청률을 보였던 '고쿠센'의 팬 카페가 압도적으로 많은 68개를 기록했으며 이어 화제작이었던 '반항하지마'가 19개, '춤추는 대수사선'

이 14개 개설되어 있다(〈표 14〉 참조). 팬 카페의 개별 단위당 가장 많은 회원 수를 갖고 있는 것은 ‘춤추는 대수사선’으로 8,662명의 회원수를 갖고 있었다.

반면 시청률은 그다지 높지 않았지만, 드라마 팬 카페는 비교적 많았던 것은 ‘음양사’(6), ‘퍼스트 러브’(6), ‘기묘한 이야기’(4)등을 들 수 있다.

개별 드라마의 팬 카페가 아니라 일본 드라마 통합 카페의 활동도 상황을 이루고 있다. 다음 카페에서 일본 드라마로 검색했을 때 549개 관련 카페가 등재되어 있었으며, 이 가운데 대표적인 종합 카페는 아래와 같다. *日本㉠㉡*의 경우 회원수 82만 여명을 넘어설 정도로 활동이 활발했다.

이하는 대표적인 일본 드라마 통합 카페이다(〈표 15〉 참조).

〈표 15〉 대표적인 일본 드라마 통합 카페

대표 카페	회원수	개설일	주소
* 日本㉠㉡ *	825,967	2002.11.3	http://cafe.daum.net/ghdtpwk
㉢㉣㉤㉥㉦㉧㉨㉩	109,305	2003.4.23	http://cafe.daum.net/dmsldia
일드에 미친 박문락	49,091	2003.1.18	http://cafe.daum.net/rager
**** Japanize ****	15,674	2003.6.24	http://cafe.daum.net/Japanize
日本㉠㉡㉢	7,899	2003.10.6	http://cafe.daum.net/japanesstv

* 2004년 6월11일 현재

** 상기 결과는 다음카페에서 검색한 수치

6. 맺으며

금년 1월 5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내에 소개된 일본 드라마의 특성 및 편성현황, 이에 대한 수용자의 반응을 제한적인 범주에서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방법론상의 한계는 존재했지만, 일본 드라마의 편성 및 국내 반응을 살펴본 결과, 현 단계에서 국내에 미치는 산업적 문화적 여파는 크지 않은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 드라마의 시청률은 전반적으로 약세였을 뿐만 아니라 고쿠센을 제외하고는 커다란 반향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시청 연령 또한 일부 젊은 층 중심으로 이루어져 연령을 초월하거나 전국적인 인기를 얻는데도 실패했다. 이러한 실태를 반영하듯 6

월 들어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일본 드라마 편성량도 크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다.¹¹⁾ 다만 일본 드라마 유통량은 5월말까지 총 40편으로 외국 드라마 가운데 정상권에 속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전반적으로 시청률이 저조하다고 해서 일본 드라마의 잠재가능성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고쿠센'이 지상파를 통해 방영되었다고 한다면, 그 폭발력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일본 드라마 출연배우의 국내지명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내 시청률이 30%가 넘는 최신 빅히트 드라마가 소개되거나 영화, 만화와 TV간의 미디어 믹스가 제대로 결합한다면, '고쿠센'을 능가하는 드라마가 출현할지 모른다. 케이블TV와 위성방송으로만 국한된 현행 개방정책 하에서는 일본 드라마의 전국적 대박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고쿠센'을 능가하는 성공모델이 등장한다면, 그 시기는 빨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일본 드라마에 대한 위협론이 충분히 현실적으로 불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분간은 현행 단계적 개방기조를 유지하면서 케이블TV 및 위성방송에서의 일본 드라마 개방정책 실험은 계속되어야 할 것 같다.

<<참고문헌>>

- 정순일, 장한성(2000), 한국TV40년의 발자취, 방송문화진흥회, 40항
- 김영덕(2002), 일본방송개방과 교류,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3), 일본 대중문화 개방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 유세경, 이경숙(2001), 동북아시아 3국의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타난 문화적 근접성, 한국언론학보 제45-3호.
- 강태영(2002), 한국TV예능 오락 프로그램의 변천과 발전, 한올아카데미.
- 岩男壽美子(2004), テレビドラマのメッセージ, keiso shobo.

<<자료>>

- 문화관광부 각 년 방송프로그램 수출입현황 자료

11) MBC드라마넷은 주 5회 편성에서 2회로 축소되었고, OCN과 온 스타일은 일부 재방 편성하고 있으며 홈 CGV는 일본 드라마 편성을 중단했다.

- 일본 비디오 리서치 주식회사 시청률 자료
- 닐슨 미디어 리서치 시청률 자료
- 방송위원회 2003.12.31 보도자료
- 다음 사이트
- 네이버 사이트
- MBC드라마넷 사이트 시청자 게시판
- SBS드라마 플러스 사이트 시청자 게시판
- 문화일보 2004년 2월 3일자

